

살벌해진 총선판

미행·도청·정보 빼내기...첨보전 방불
선거사무실 절도도 잇따라 보안 비상

선택 4·11
D-12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캠프마다 '보안 비상'이 걸렸다. 상대 후보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심부름센터에 미행을 요청하는가 하면 선거전략 등 정보를 캐내기 위한 '스파이' 행위도 빈번해져 '첨보전'을 방불케한다. 여기엔 민주통합당 후보공천 과정의 갈등과 잡음 등으로 사상 유례없이 과열된 지역선거 분위기가 한몫하고 있다.

광주의 A후보는 최근 도청탐지업체를 불러 사무실 내부를 철저히 수색했다. 도청의심 때문이다. 이 사무실에서는 정적인 등을 담은 서류가 자주 분실되고 회의 내용이 고스란히 상대 후보 캠프에 전달되는 일이 발생했다.

B후보 캠프 역시 같은 업체에 수색

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C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거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고 통제가 어렵다 보니 사무실의 서류나 기획안이 없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광주지역 심부름센터에도 선거 운동 관련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한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누구를 만나는지 미행을 부탁하거나 도청 요청, 도청장비 판매를 문의하는 전화가 1주일에 2~3건씩 걸려온다"며 "위험부담이 커 잘 맡지 않지만 실제 활동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휴대폰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다. 홍보메시지 발송을 위한 주민 명단 등 각종 기록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막대한 정보 유출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아예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후보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후보들이 정보가 샌다는 불

안을 느끼는 것은 한국 특유의 선거 관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 때마다 출마 후보는 많아지지만 뒷발질할 '선거꾼'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이들이 매번 지지후보를 옮겨다니면서 각 후보 진영의 정보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 입장에서선 자원봉사를 가장해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지지자들을 쉽게 뿌리칠 수도 없다.

한 캠프 관계자는 "상대 후보 진영에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캠프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골몰하고 있다. 회의 때마다 보안강화를 주문하고, 자체 불법 선거운동감시단을 운영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 동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병훈 후보는 "깨끗한 선거운동을 모토로 내세웠지만 문제는 선거전략 등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회의 때마다 보안강화를 주문하고, 자체 불법 선거운동감시단을 운영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9일 광주 서구 금호동 품금사거리에서 조선시대 임금 복장을 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9일 광주 서구를 아권연대 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훈 후보가 금호동 품금사거리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거리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3일의 열전' 돌입

여야, 무소속 후보들 일제히 거리유세

4·11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9일 시작되면서 여야는 13일간의 총력전에 시동을 걸었다. 광주·전남지역 여야 및 무소속 후보들도 이날 각 선거구 주요 장소에서 일제히 출정식과 거리유세를 시작하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총선은 의회권력 창출이라는 의미를 넘어 18대 대선구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량계로 인식돼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할 기세다.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이날 열세지역인 서울 영등포에서의 출근길 인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뒤 영등포갑·양천갑·강서갑을 차례로 방문하며 이곳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또 이날 낮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종로-중구 합동유세에 이어 서울 중동부와 경기 동남부 16개 지역에 대한 유세를 이어가며 '박풍(朴風)몰이'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이날 새벽 동대문시장을 찾아 "심판의 새벽이 열렸다"고 포문을 연데 이어 오전 일찍부터 서울과 경기도 광명을 찾아 '이명박근혜'(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정권 심판론의 불을 지피는데 공을 들였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 권영세(영등포을)·김종훈(강남을)·홍준표(동대문을)·홍사덕(종로)·이재오(은평을) 후보를 'MB(이대통령)-박근혜 이바타' 5인방으로 정하고 이들의 지역구를 일일이 찾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림

여름방학 뉴질랜드 스쿨링캠프 현지학생과 정규수업...4월 4일 접수 마감



지난 1월 겨울방학기간에 실시된 3회 연수에 참가한 광주 윤리중 3년 나재환군과 뉴질랜드 홈스테이 가족.

뉴질랜드 현지학생들과 정규수업을 함께 받는 정통영어 어학연수인 '제4회 여름방학 뉴질랜드 스쿨링캠프'에 글로벌시대 꿈나무들을 초대합니다.

광주일보사는 현지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연수는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에서 매일 수업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영어실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방과 후에는 영어향상에 도움이 되는 ESOL과 한국 교과목인 수학 등을 매일 공부합니다. 특히 4주간 현지거주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문화와 실용영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 주최 : 광주일보사
- 주관 : 한뉴문화교육센터
- 연수학교 :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 Howick Intermediate School 등 6개 초·중학교
- 연수기간 : 7월 25일부터 8월 21일(4주)
- 신청마감 : 4월 4일 까지 선착순 50명
- 연수금액 : 498만원 (개인용돈, 광주~인천공항 교통비 불포함)
- 문의 : (062)220-0555, 018-693-6604

光州日報社

"영유아무상보육 전액 국비로"

박준영 등 전국시도지사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지사)가 29일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재원이 6~7월이던 고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연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했고,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사업은 일선 지자체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전남도는 이 사업을 위해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률기자 kroh@kwangju.co.kr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님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혜택이 좋은 회원권 보다는 대우받는 회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 2012년 1월 24일 ~ 3월 31일
- 클럽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하리 1219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p>VIP 정회원 - 모집인원 : 11명</p> <p>▶ 입회금액 : 3억 3,000만원</p> <p>▶ 회원특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회/1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365일 사용, 1일 1회) 	<p>하트 정회원 - 모집인원 : 15명</p> <p>▶ 입회금액 : 2억원</p> <p>▶ 회원특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지정회원 1인 : 그린피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 1일 1회)
<p>휴먼 정회원 - 모집인원 : 12명</p> <p>▶ 입회금액 : 1억 5,000만원</p> <p>▶ 회원특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지정회원 1인 :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90회 사용, 1일 1회) 	<p>해피 정회원 - 모집인원 : 37명</p> <p>▶ 입회금액 : 1억 1,000만원</p> <p>▶ 회원특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지정회원 1인 :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p>주중 / 평일 회원 - 모집인원 : 48명</p> <p>▶ 입회금액 :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p> <p>▶ 회원특전 : 평일회원 1인 : 그린피 70%할인</p>	

※ 계약시 : 정회원인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한남시 : 모든 특전
※ VIP·하트·휴먼·해피 정회원은 광주은행 당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 Fax 061)33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 www.happinesscc.com